

“기술금융 네트워크 본격화”

전북특구본부, 분과위원회 열고 기관별 대응방안 논의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본부장 조용철 이하 전북특구본부)는 '기술금융 분과위원회' 개최를 시작으로 전북특구 금융 네트워크 활성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전북특구 지역혁신 네트워크 사업으로 지난 2019년 구축된 네트워크인 '기술금융 분과위원회'는 본 사업의 수행 기관인 전북창조경제 혁신센터를 비롯한 도내 기술금융 관련 27개 기관이 참여해 투자 유망기업 발굴 기관 간 지원사업 공유 및 지원 연계 투·융자 활성화 방안 논의 등을 진행해 왔다.

지금까지 8회에 거친 활동을 통해 50개 유망기업을 발굴, 전북특구 투자 IR로 연계해 8개사 39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창출했다.

또한, 참여기관간 협업을 통해 투·융자 지원정보를 종합한 '기술금융 지원시책'을 발간 기업들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이날 분과위원회는 가장 핫한 이슈인 'ESG 대응과 스타트업 성장 방안'에 대한 전문가 강연 후 기술금융 지원 측면에서 각 기관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2021년 전북도 투자 광광역

추진 등 기관간 협업이 필요한 안전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전북특구본부는 향후, 기관별 추천된 기업을 선별해 투자유치를 위한 사전 교육을 진행하고, 기관 간 협력을 통한 중규모 IR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스타트업의 투자 스킴 향상을 위해 IR자료 작성법, IR피칭스립, 투자유치 성공사례 등을 수록한 기술금융 가이드북을 제작하기로 했다.

조용철 전북특구본부장은 "전북도의 기술금융 인프라는 타 지역 대비 열악하나 기술금융 분과와 같은 실질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국회 농해수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사진 왼쪽)과 함께, 부안군 공항미리나 부지와 새만금신항 건설 현장을 지난 3일 방문한 가운데 문 장관과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군산-새만금-부안-고창 잇는 서해권 관광벨트 구축을”

민주 이원택 의원, 문성혁 해수부장관과 새만금신항 등 현장 방문

국회 농해수위 위원인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이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과 함께, 부안군 공항미리나 부지와 새만금신항 건설 현장을 지난 3일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 박준배 김제시장, 김종택 부안 부군수가 함께 했다.

부안군 공항미리나 현장에서 김종택 부안 부군수는 공항미리나항만 조성사업 추진현황 보고와 서해권 대표 미항인 격포항과 공항미리나항만을 연계한 '서해권 노을해양공원' 조성계획, 격포항 국가어항 확장개발, 격포-공항간 해양탐방로 조성, 국립해양문화사실 건립 등을 건의했다.

문성혁 해수부장관은 "서해권 대표 미항인 격포항 확장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공항미리나 사업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검토해 지원하겠다"면서 "현재 부안군에서 검토 중인 '서해권 노을해양공원' 사업과 격포항-공항간 연계 개발 및 해양탐방로 조성사업을 성실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원택 의원과 문성혁 장관은 새만금신항 건설 현장을 방문해 투기장 및 호안 조성공사 등 새만금신항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신항은 새만금 내부개발에 따른 산업자원 및 대중국 교역활성화에 대비한 환황해권 거점항만으로 육성될 것이며, 세계적인 트랜드에 맞춰 저탄소·스마트·수소 전용항만으로 특화개발돼야 한다"면서 "새만금개발과 노을대교 건설을 연계한 군산-새만금-부안-고창을 잇는 전북 서해권 관광벨트를 구축해 전북 해양관광벨트의 신성장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새만금개발청-AON 한국지사 해외 투자유치 활성화 협약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종모)은 서울 투자전시관에서 AON(에이온) 한국지사(지사장 김규정)와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해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AON(에이온)은 1919년에 설립,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120여국에 500개 사무소(5명의 직원)를 운영하고 있는 세계 2위의 재보험중개회사다.

새만금개발청과 AON(에이온)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잠재투자기업 발굴, 투자설명회/세미나 공동 개최 등의 투자유치 홍보와 투자유치 관련 정보교류 등 상호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AON(에이온) 김규정 한국지사장은 "우리 회사가 보유한 해외 네트워크와 조직을 활용해 새만금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유치 지원, 투자기업에 대한 위임관리 등이 가능하다"면서 "하태지역 본부와도 새만금이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종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은 스마트 그린산단과 수변도시, 신공항, 신항만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며 "AON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축적된 데이터가 새만금의 해외기업 유치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완주 제철유적지, 문화유산 활용 가치는 ‘무궁무진’”

송지용 도의장 “문화벨트, 완주-전북 견인 수레 두 축”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완주)은 지난 3일 완주군 제철유적지에 대한 학술조사를 통해 고대 문화권을 재조명하고, 문화콘텐츠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 의장은 이날 국철인 전북도 문화유산과제와 노기환 학예연구관, 황재남 안남사민갤러리 관장, 정주하 구재마을 이장, 손이나 작가 등과 함께, 제철유적지 추정터 및 다량의 슬러그 덩어리가 확인된 완주군 경천면 신흥계곡 제철 유적지를 방문해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완주지역은 신흥계곡을 비롯한 시유동 제철지 등 36개소가 있으며 특히, 신흥계곡은 접근성이 좋고 유적 상태가 원형에 가까운 형태로 보존돼 있다.

또한, 대안위의 제철 유적으로 속소, 철광석 채취 흔적, 재련유적, 가마터, 슬러그 등이 잘 보존된 것으로 추정돼 고대로부터 완주지역이 최선의 기술력으로 철 생산 지역의 역할을 해 왔음을 짐작할 수 있고, 문화재지정도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의 진단이다.

이를 위해 기초조사와 발굴작업, 학



계의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송지용 의장은 "완주 신흥계곡 제철지에 대한 학술조사와 기초발굴작업을 토대로 제철지 주변의 봉수와 산성, 화완지, 옛길, 신흥전 발원지 대지샘 등 역사 문화자원을 엮는 큰 그림을 그려보겠다"며 "향후 이 현장이 훼손되지 않게 잘 보존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용역 등 후속 조치를 통해 완주군 문화콘텐츠로 새롭게 조명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탄소 산업과 문화벨트는 완주와 전북도를 견인할 커다란 수레의 두 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도의회 상임위 의정 증계석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함께 할 것”

한복위, 군산의료원 찾아 현장의정활동 전개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연)는 지난 3일 군산시 지곡동 소재 '군산의료원'을 방문해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위원들은 업무보고를 직접 현장에서 청취하며,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최일산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위원들은 군산의료원이 공익적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역주민 보건교육사업 등의 진행상황과 운영실적을 확인하고,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기능보강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지난 3일 군산시 지곡동 소재 '군산의료원'을 방문해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명연 위원장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군산의료원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익적 가치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환경복지위원회는 의료현장을 수시로 찾아가 애로사항을 확인

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의료원은 지역 내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격리, 진단 치료, 관리가 가능한 병상을 확보하고 운영하며, 감염병 진단 공공병원을 수시로 찾아가 애로사항을 확인

“신재생에너지 메카 조성에 큰 기대감”

문건위, 도립미술관 등 찾아 현장의정활동 펼쳐 새만금 태양광 사업 현장 방문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지난 3일 제84회 임시회 기간 중 전북도립미술관과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현황을 청취하고 관계자를 격려하는 등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문건위 의원은 먼저 전북도립미술관을 찾아 "현재 추진중인 '도립미술관 아티정원 및 건물리모델링사업' 현황을 청취하고 현장을 점검했으며, 미술관이 도민 문화예술 향유와 전북 미술을 대표하는 상징성 있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문건위 의원은 전북개발공사에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현황을 청취하고 사업대상지를 점검했다.

이정린 위원장은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조성되는 것에 대한 큰 기대감을 드러내며,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의회 차원에서 도 아낌없는 지원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지난 3일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현황을 청취하고 관계자를 격려하는 등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발전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현황을 청취하고 사업대상지를 점검했다.

이정린 위원장은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조성되는 것에 대한 큰 기대감을 드러내며,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의회 차원에서 도 아낌없는 지원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개발공사에 추진중인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은 새만금 산업연구단지 남측 2구역에서 총사업비 2,580억 원을 들여 33만평 규모에 100MW의 수상 태양광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9월 도의회 신규투자사업 동의를 통과했으며, 올해 하반기 입찰공고 등을 거쳐 사업 착수 후 2023년 준공될 예정이다.

“내년 국가예산 확보 위해 마지막까지 총력 다해줄 것”

행자위, 추경 심사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문승우)는 지난 3일 제384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소방본부, 대외협력과 등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심사했다.

문승우 위원장(군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사유와 내용에 대해 질의하고, 2022년 국가예산 확보

를 위해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성경찬 의원(고창)은 "체류 외국인에 대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치안 분야에서도 도민들의 불안감이 거둬지고 있다"면서 "비등록 외국인을 양성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정책화해 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용근 의원(정수)은 코로나19와 관련, 환자 이송과 백신접종 관련 의용소방대의 활동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해당 활동은 지역주민들에게 높은 만족도와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의탁 의원(무주)은 무주소방서 건립 추진현황과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나 사고에 대응해야 하는 만큼 일반행정 건물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과거에 조성, 무용지물 된 학교 내 시설 정리를”

교육위, 추경 심사... 오늘 최종 논의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희수)가 이틀에 걸쳐 전북도교육청의 4개 실국과 12개 직속기관, 14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이번 제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 김희수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원들은 신규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며, 실효성이 부족해 보이는 사업은 구체적 실행계획 등을 요구하며 심도 있게 검토했다.

최영일 의원(순창)은 "유치원 누리과정 운영기지원이라고 표시돼

있는 사업은 어떤 기기를 지원하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일괄적으로 도교육청이 정한 기기를 지원하는 방법보다 현장에서 부족한 기기를 요청받아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을 주문했다.

강용구 의원(남원)은 "학교 내 생태체험학습장 조성사업의 경우, 학교 내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어려워 통물로 지리 잡는 경우가 많다"며 "과거에 조성해 무용지물이 된 학교 내 시설을 정리하고, 도교육청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생태체험장을 곳곳에 배치하는 방안을 고

민해보라"며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다.

김희수 위원장(전주)은 "학생 도서를 지원하는 사업이 많지만 단순 도서 구매비로만 집행되고 있다"며 "학생들이 이런 사업으로 독서열을 높이기 위해선 모나타림과 시대 흐름에 맞는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책구라기 지원사업의 구체적 활용방안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심사한 추경예산안에 대해 추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받고, 검토 후 6일 최종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